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돐을 경축하여



대공연 《영원한 태양의 노래》 진행



청년학생들의 야회 진행



제 7 차 4 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진행



중앙 사진 전람회 진행



전국미술축전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 진행



조명 축전 진행



국가도서전람회 진행



우표 전시회 진행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진행



제 25 차 태양절료리축전 진행

시 초

위대한 통일업적 천만년 빛나리라

그리움의 하늘

유현의

누구나 수령님생각으로 가슴 적시며
그리움에 사무치는 4월의 이 봄날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하늘은
끝이 없는 우리의 그리움이더구나

바로 저 하늘이더라
겨레위해 마음도 많이 쓰신 수령님
남녘동토 생각이 간절할시 때면
한낮에도 한밤에도 창을 열고서
이윽도록 바라보며 떠날줄 모르시던

하늘을 헤가리며 떠가는 구름아
폭염에 가뭄든 남녘의 대지
그리도 걱정하시던 우리 수령님
안타까이 하늘가에서 찾고 찾으시던
그날의 그 비구름 너 아니었더나

밤이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남녘인민들 생각해 참들수 없다시며
생신날 밤에도 바라보신 남쪽하늘
그밤의 별들이 오늘도 찾아
깊은 사연 전하며 밝은 빛 뿌리누나

연백별이 전하는 이야기

리송일

내 나라 협동별 그 어디를 가도
수령님 자욱 어려웠건만
뒤통라라
연백이란 말만 해도 눈곱 찌릿해
지는
이곳에 새겨진 만단사연은

원한의 분계선이 지척인 땅
그 어느곳보다 분별의 울분이
습내인 곳이어서
수령님 마음도 많이 쓰신 곳
그리도 자주 찾고 찾으시던 땅이여

물고생에 찌들린 남연백별농민들
그 정상이 달팔길 없는 아픔이어서
그들에게 달리는 마음의 문 여시듯
수문을 열어 관개용수 보내주실 때
흘러 흘러간것은 사랑의 생명수

온 나라 방방곡곡 찾으실 때에도
밤길도둑 인민들을 돌보실 때에도
수령님 심중에 비껴들던 남녘하늘가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지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수 없듯이
우리 다 헤아릴수 없노라
겨레를 위해 기술이신
수령님의 그 심혈의 시작과 끝을

분별이 가서진 통일의 날 그려보시며
수령님 늘 바라보시던 남녘의 하늘가
삼천리에 통일의 봄 기어이 펼쳐주시려
저 하늘의 태양이 되시여
봄빛남천 이 땅에 해살 가득 뿌리시여라

수령님 통일의 한생 비껴있는 하늘
겨레는 마음속에 정히 안고사노라
하늘처럼 넓은 수령님의 품
그 품에 세세년년 안기어 살며
끝없는 그리움 끝없는 하늘에 수놓으
리라

분계선으로 생때같이 갈라진 남편
속이 라 제만 남은 연백의 너인에게
통일은 반드시 된다 힘을 주시고도
가신 길 되돌아와 두손 다시 잡아주신
그 봄날도 흘러간 세월속에 새겨졌기니

남녘이 멀지 않은 그곳에 가시면
그리운 남녘동토 보여올듯싶어
오신 길 쉬이 떠나지 못하셨고
가셨다 다시 오신 우리 수령님
생애의 마지막 그 날에도
지평이 짙어지고 찾아가신 연백별이여

수령님 이렇게 꼭 오셔야만 하는가고
오열을 쏟던 연백의 사람들
오늘도 그들의 가슴마다에
그날의 눈물이 고이여있고
그날의 걱정이 풀고있이라

저 멀리 바다 건너 조국땅에서만
어머님의 노래가 울리는것입니다
태양길 경사스러운 이 봄날
이 지역의 우리들도 노래부르웁니다

힘겨웁게 한걸음 한걸음 내걸으시며
그이 생애에 마지막으로 찾으신
그 땅이 바로 여기 연백별이었으니
그날의 그 지평이 마음속에 안아보며
벼바다너머 바라보면 안겨오누나
수령님 안방에 담으시던 남녘의 산야

탑이여, 그 은공 길이 전하라

리철준

여기 평양의 남쪽편에 서있어도
8천만겨레의 가슴에 솟아 빛나고
통일의 앞길 밝히는 등대처럼
삼천리 어디서나 보이여오는 탑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여

바라보아 두 너인이 정히 떠받든
분계선이 없는 조성의 모습
우리 수령님 80평생
마음속에 소중한 품고사신 내 나라
하나가 된 내 조국의 모습이여

어찌 마음속에만 그려보셨으랴
저 탑처럼 통일조국 높이 일떠세우
시려
한자한자 써가시던 불멸의 대강
자신의 삶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겨레를 때려놓은적 없으시듯이
언제 한번 잊으신적 없으랴 조국통일을

그 누가 밤을 안식이라 했던가
민족의 통일 앞당길 진로를 밝혀
이어가신 사색엔 낮과 밤이 없었거니
심신을 태우신 그 밤들과 더불어
이 땅에 태어난 불멸의 통일대강이여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3대헌장

영원한 사랑의 노래

김영일

저 멀리 바다 건너 조국땅에서만
어머님의 노래가 울리는것입니다
태양길 경사스러운 이 봄날
이 지역의 우리들도 노래부르웁니다

《조국의 사랑은 파사로워라》

통일로 가까이 가고 가시듯
연백별로 오시고 또 오신 수령님
자욱
세월이 지우라 눈비에 씻겨지랴
통일위해 바치신 어머니의 그 로고
연백별은 길이길이 전해가리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그 어이 글밭이라고만 하랴
분별을 태우는 거대한 불이 있고
겨레를 묶어세워 위대한 기치 있어
조국통일3대헌장 이는
우리 수령님 한생의 업적 어린
민족의 역센 힘 통일조성의 밝은 미래

수령님 지새우신 그밤들의 불빛 여러
기념탑의 탑신은 저리도 눈부시고
수령님 한생의 심혈 쌓이고 쌓여
기념탑의 기단은 저리도 튼튼하거니

오, 바라볼수록 새겨볼수록
수령님 한평생 바치신
로고의 응결체로 안겨오는 탑이여
분별된 강도에서 오직 하나
통일조선 높이 떠안고 치솟는 탑이여

영원히 전해가다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여
통일위해 쌓으신 수령님 그 업적
겨레위해 바치신 어머니의 그 은공
통일조국 삼천리에 빛내여가며
천추만대 무궁토록 전해가다오

우리가 풍장을 몇개 못 짓는한이
있어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자고
일본에 단 한명의 조선학생이 있어도
해마다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하시던 수령님 그 말씀

아, 이 세상 어느 시대에
이역땅 자식을 위해 천만품 들여
학교를 세워준 어머니 있었습니까
우릴 낳아 길러준 친어머니도
학교만은 꿈에서조차 줄수 없었습
니다

나를 살림 너덕해 배운 사랑 아입니다
수령님 세우주신 우리의 대학
어제는 내가 그 전당의 첫 대학생
오늘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배움의 대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풍장을 몇개 못 짓는한이
있어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자고
일본에 단 한명의 조선학생이 있어도
해마다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하시던 수령님 그 말씀

나를 살림 너덕해 배운 사랑 아입니다
수령님 세우주신 우리의 대학
어제는 내가 그 전당의 첫 대학생
오늘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배움의 대문을 열었습니다

나를 살림 너덕해 배운 사랑 아입니다
수령님 세우주신 우리의 대학
어제는 내가 그 전당의 첫 대학생
오늘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배움의 대문을 열었습니다

나를 살림 너덕해 배운 사랑 아입니다
수령님 세우주신 우리의 대학
어제는 내가 그 전당의 첫 대학생
오늘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배움의 대문을 열었습니다

나를 살림 너덕해 배운 사랑 아입니다
수령님 세우주신 우리의 대학
어제는 내가 그 전당의 첫 대학생
오늘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배움의 대문을 열었습니다

나를 살림 너덕해 배운 사랑 아입니다
수령님 세우주신 우리의 대학
어제는 내가 그 전당의 첫 대학생
오늘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배움의 대문을 열었습니다

나를 살림 너덕해 배운 사랑 아입니다
수령님 세우주신 우리의 대학
어제는 내가 그 전당의 첫 대학생
오늘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배움의 대문을 열었습니다

나를 살림 너덕해 배운 사랑 아입니다
수령님 세우주신 우리의 대학
어제는 내가 그 전당의 첫 대학생
오늘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배움의 대문을 열었습니다

돈을 내야 교문을 열수 있는 땅
황금만능 지배하는 차디찬 이 땅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들어서는 조선학교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이
대를 이어 누리는 복에 눈물집니다

나라가 어려워 허허머 졸라매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이역땅 자식을 위해 천만품 들여
학교를 세워준 어머니 있었습니까
우릴 낳아 길러준 친어머니도
학교만은 꿈에서조차 줄수 없었습
니다

나라가 어려워 허허머 졸라매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이역땅 자식을 위해 천만품 들여
학교를 세워준 어머니 있었습니까
우릴 낳아 길러준 친어머니도
학교만은 꿈에서조차 줄수 없었습
니다

나라가 어려워 허허머 졸라매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이역땅 자식을 위해 천만품 들여
학교를 세워준 어머니 있었습니까
우릴 낳아 길러준 친어머니도
학교만은 꿈에서조차 줄수 없었습
니다

나라가 어려워 허허머 졸라매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이역땅 자식을 위해 천만품 들여
학교를 세워준 어머니 있었습니까
우릴 낳아 길러준 친어머니도
학교만은 꿈에서조차 줄수 없었습
니다

나라가 어려워 허허머 졸라매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이역땅 자식을 위해 천만품 들여
학교를 세워준 어머니 있었습니까
우릴 낳아 길러준 친어머니도
학교만은 꿈에서조차 줄수 없었습
니다

나라가 어려워 허허머 졸라매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이역땅 자식을 위해 천만품 들여
학교를 세워준 어머니 있었습니까
우릴 낳아 길러준 친어머니도
학교만은 꿈에서조차 줄수 없었습
니다

나라가 어려워 허허머 졸라매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이역땅 자식을 위해 천만품 들여
학교를 세워준 어머니 있었습니까
우릴 낳아 길러준 친어머니도
학교만은 꿈에서조차 줄수 없었습
니다

판문점의 통일친필비여!

강은별

뜻깊은 사연 세월넘어 전해가는
여기 판문점 통일친필비일에 서니
어제런듯 삼삼하구나
원수님 오셨던 3월의 그 봄날이

바로 이 자리 아니던가
장군님 오셨던 그 자욱따라 오시여
너무도 눈에 익은 수령님의 활달하신
필체
원수님 오래도록 보고 또 보시며
마음속에 정히 새겨안으시던

《김 일 성
1994. 7. 7.》

수령님 한생님원 어려웠는 글밭
자신의 심장속에 새겨있는 글밭
그래서 수령님생각 간절할시 때마다
늘 떠오르던 이 친필앞에서
원수님 심중은 그 얼마나 깊으셨던가

수령님 한생님원 어려웠는 글밭
자신의 심장속에 새겨있는 글밭
그래서 수령님생각 간절할시 때마다
늘 떠오르던 이 친필앞에서
원수님 심중은 그 얼마나 깊으셨던가

판문점의 통일친필비여!
강은별
판문점의 통일친필비여!
강은별

판문점의 통일친필비여!
강은별
판문점의 통일친필비여!
강은별

판문점의 통일친필비여!
강은별
판문점의 통일친필비여!
강은별

판문점의 통일친필비여!
강은별
판문점의 통일친필비여!
강은별

판문점의 통일친필비여!
강은별
판문점의 통일친필비여!
강은별